

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제주	응시횟수	2
입용시험 준비시기	EX) 교육대학원 재학중	합격 준비기간	2년	시험준비 병행여부	1년 : 학업과 병행 1년 : 올인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8.67]점 / 전공(교육과정) [55]점
최종 합격점수	[165.910]점
가산점	[0]점

● 합격수기 작성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25 미술 입용 재수로 제주 지역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초수 때 컷에서 -0.33점 차이로 공립 1차에서 탈락을 했고, 운이 좋게도 2순위였던 사립에 붙었지만 사립의 경우 최종 2인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저의 성적은 초수 때보다 교육학 +5점, 전공은 +10점이 올랐습니다.

제 합격수기는 초수와 재수 시절을 토대로 제가 느낀 점을 작성한 것이며,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RO

공부환경 : “시험 자체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롯이 시험에만 몰입할 수 있는 공부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시험이 그렇듯, 이 시험은 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까지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에 앞서 필요한 부분을 3가지로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적인 부분 : 누군가는 시험 준비를 위해 일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가족의 지원을 통해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저는 시험 준비에 앞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금전적인 부분이 이 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노량진 자취기준 한 해 필요한 금액은 2,000 ~ 2,500만원입니다. 저는 재수까지 대비해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닐 때 남들이 꺼리는 일을 가리지 않고 하며 돈을 모아 노량진에 왔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수험생활을 하다보니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마다 더욱 경각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 최소한의 인간관계 :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신경쓰일 요소를 줄여나가세요. 저는 시험 기간 동안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 제외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만남도 최소화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잠깐 시간을 두어도 전혀 관계에 변함이 없습니다.

3) 시험 자격에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 졸업, 교원자격증, 한국사 등 시험 자격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초수 때는 대학원 논문을 병행했고, 그 해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논문은 아무리 사전에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여러 차례의 심사와 교수님과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수 때 논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교육학 : “최근 교육학 시험은 단순 암기보다 응용력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초수 때는 강의에만 의존했습니다.

재수 때는 강의 의존도를 줄이고 두 강사의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교육학 이론강의에서 강사별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파트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론으로 다루는 내용은 강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사를 택하고 상반기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암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강생이 가장 많은 두 강사의 문제풀이를 접하며 시험에 대해 유연하고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듣는 시간은 시험에 가까울수록 줄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곤 강의를 듣지 않고 함께 주는 유인물을 통해 혼자 학습했습니다.

●전공 학습방법 : “초수 때는 수동적이었다면, 재수 때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시기별 전공 학습방법		
	초수	재수
1~2월	전부 직강으로 커리 그대로 따라감. 학원에서 짜주는 스터디만 진행함.	사립2차 준비 그리고 최종 탈락
3~4월		기본, 심화 이론 강의 인강으로 수강 기출문제 스터디 진행 (온라인)
5~6월		문풀은 직강 필독서·사전강의는 인강으로 수강 백지쓰기 스터디 시작 (주2회)
7~8월		문풀은 직강 기출은 인강으로 수강 백지쓰기 스터디 (주3회)
9~11월		문풀은 직강 백지쓰기 스터디 (하루 2번씩 매일)

① 필기량이 많은 강의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 필독서·사전 강의는 필기량이 많습니다. 저는 이론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면서 모든 내용을 바로 기본이론서에 정리했습니다. 직강으로 듣다보면 중간에 놓치는 내용도 많고, 다시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필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강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② 문풀은 직강을 추천합니다.

직강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과 시간제한이 시험 준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항상 진짜 시험이라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시간 수면을 확보해야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은지, 간식은 어떤 게 가장 잘맞는지, 시험 직전에 어떤 순서로 책내용을 살펴볼지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③ 모의고사는 중요합니다.

저 역시 수험생활 중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합격수기 중 모의고사 등수는 실제 시험 점수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평소에 잘 보는 사람이 실제 시험에 잘 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고득점 합격자들이 많은데, 전부 모의고사 상위권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부정하고 좌절하기보다 자신이 자주 틀리는 부분을 반드시 분석하고 오히려 시험 전에 알 수 있음에 감사하며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와 상관없이 고득점을 받았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④ 이왕 가는 직강이라면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직강에서 아침 7시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7시부터 수업 시작 전 9시 사이에 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가장 잘됐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사이에 내가 실제 시험에서 어떤 파트를 먼저 보아야 효율적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서로 약속하진 않았지만 아침 7시에 맞춰 오시는 몇몇 선생님이 계셔서 끝까지 서로 마음속으로 응원하다가 시험 전 마지막 서로를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이야기를 평소에 나누지 않았지만 항상 함께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⑤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 날 강의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가야합니다. 분명 선생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 순서를 기다리던 중 다른 사람의 질문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질문 내용 중 이번 실제 시험에 적중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내어 질문하세요. 부끄러운 질문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⑥ 투 커리가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시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재수이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 투 커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시도해본 결과 강의에 투자하는 시간만 늘어날 뿐 개인 공부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타강사의 강의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윤진쌤이 위상 강의에 투입됨으로써, 확실히 강의 내용이 더 완성형에 가까워졌습니다. 위상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절대 내용이 부족하진 않을 것입니다.

⑦ 스터디를 적극 활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재수 때 가장 먼저 온라인으로 기출문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초수 때 사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스터디를 통해 2014~2024년 내용들을 여러명이 공유함으로써 기출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이 가능했고, 가져가야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문제 유형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스터디를 하고 '아 이걸 미리 했더라면 초수에 합격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백지쓰기 스터디는 같이 독서실 다니는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위상 직강에 나가면서 독서실에 성실하게 나오시는 선생님이 계셔 먼저 다가갔습니다. 노랑진이여서 쉽게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서로 부족한 파트를 먼저 하다가, 그 분량을 점점 늘려나갔고, 마지막에는 아침 8시에 1번 밤 9시에 1번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 준비를 위해 7시에 나와서 미리 공부해야만 했고, 틀린 것을 복습하며 항상 12시에 가까이 돼서 마무리하고 집에 갔습니다. 스터디라는 강제성을 띠다 보니 아무리 공부하기 싫은 날이더라도 반드시 백지쓰기를 했습니다. 이 스터디는 모의고사 등수를 5등 안에 들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차 시험 학습방법(면접, 수업실연, 실기 등) : “2차 시험부터는 스터디원을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함께 했던 동교과 스터디원 한 분과 잘 맞아서 올해 면접, 수업실연, 실기 모두 같이 함께 했습니다. 둘이서 2차 시험 스케줄을 동일하게 진행했고 그 외 스터디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2차에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 잘맞다보니 추가 스터디원을 모집하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스터디원 전부 합격했습니다.

1) 교직적성 심층면접

카페를 통해 타교과 스터디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함께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모두 평가원이었기 때문에 면접례 시피 책 하나로만 반복 연습했으며, 서로 예시를 구체화하고 나중에는 시책까지 적용하여 답변을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직전날에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짝스터디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면접 바로 전날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수업실연이 끝나자마자 8시간동안 면접 스터디를 기출로만 진행하였습니다.

2) 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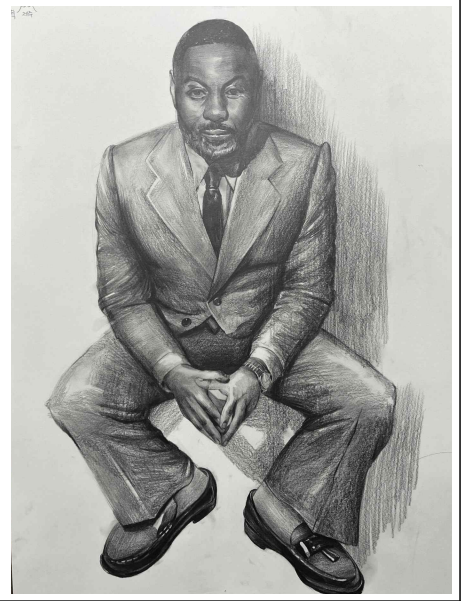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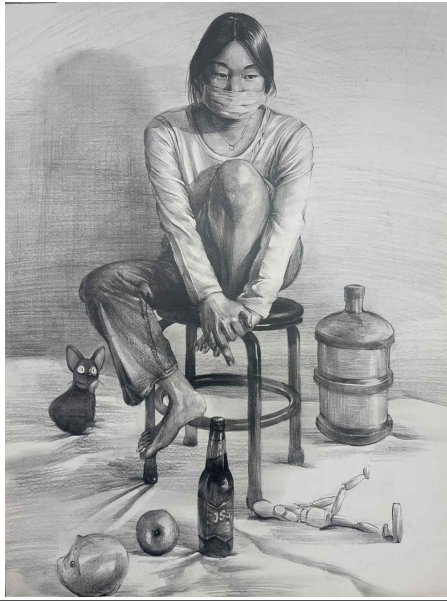
윤진쌤 강의가 스터디 방향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진쌤 강의 이전에는 교과서 단원별로 나눠 새로운 수업을 짜오는 것을 준비했지만, 윤진쌤 수업을 듣고나서 기출을 돌리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전환했습니다. 수업실연은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건 충족과 자연스러움(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기출에 나왔던 내용을 시간 제한을 두고 바로 실연해보는 연습을 통해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순발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기출 위주로 연습하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3) 실기

이번에 실기점수 30점 만점에 27.34점으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기는 개인적으로 2차 시험 중 가장 단기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유가 된다면, 실기에 대한 자기객관화를 철저히 하고 평일에 실기학원을 다니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학원에 갔을 당시, 묘사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시간 제한을 두고 시험을 보면 미처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었습니다. 실기 시험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자신의 지역 조건에 맞게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자기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2차 준비 당시 실기 시험 작품



소묘에 대한 팁이라면, 저는 H, HB, 4B, 6B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연필을 활용했습니다. 연필마다 어두움을 낼 수 있는 정도 뿐만 아니라, 종이에 쌓이는 느낌과 거친 정도가 다릅니다. 각각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연필은 H와 4B입니다.)

H: 형태 스케치, 매끄러운 살결, 흰 천, 밝은 티셔츠

HB: 밝지만 조금 거친 재질의 옷, 적당한 어둠을 낼 때

4B: 모든 곳에 사용

6B: 블랙, 머리, 그림자

●자신만의 공부방법(어려운 문제 대비법, 슬럼프 극복, 체력관리 등 수험생활 전반의 TIP)

① 3쿼터 제도

저는 하루를 3쿼터로 나눴습니다.

1쿼터 07시~12시 (5시간)

2쿼터 13시~17시 (4시간)

3쿼터 19시~24시 (5시간)

아침 7시에 반드시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고, 밤12시까지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독서실이 아침 7시부터 밤12시까지 열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패턴을 짰습니다. 무엇보다 밤 10시에 집을 가든 11시에 가든 12시에 가든 핸드폰 하다가 결국 자는 시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밤12시까지 하고 집에 갔습니다.

3쿼터를 완벽히 공부를 해내면 집에 갈 때 저를 극찬하였고, 2쿼터를 해내면 남들만큼은 오늘 했이라며 칭찬했으며, 1쿼터만 해냈다면 그래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해냈으며 격려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아낌없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② 교육학에 나온 지식을 공부법으로 활용하기 (ex.청킹, 자동화, 이중처리, 충동형, 반성형 등)

저는 이론에 있어서 청킹을 정말 많이 심어놓았고, 미교론 학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학자들의 사진을 책에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MCAE 이전에 모든 미교론 대표 학자들이 백인남성이었으며, 맥피가 여성이고 뱅크스가 흑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이론에 대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나의 학습양식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도 고민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때마다 충동적으로 급하게 풀어서 매번 무의미하게 2점씩 헌납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충동형 학습양식임을 깨닫고 검토하고 천천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며 이를 보완해나갔습니다.

③ 주관적인 표현은 모두 의심하기

예를 들어 '열심히 했다. 잘한다. 최선을 다했다. 자신있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최선이 누군가에겐 최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지 독서실에서 집에 가는 길이나 침대에 누워 자기 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설명하게 해봄으로써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④ 이상한 미신 믿지 않기

노량진 편의점에 항상 1+1 행사하는 컵밥이 있습니다. 어떤 컵밥일 것 같나요? 정답은 미역 국밥입니다. 수험생활 중 미역을 먹으면 합격에 미끄러진다는 속설 때문에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고가 남는 것입니다. 저는 미역국을 좋아해서 3일에 한 번씩 꼭 미역 국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합격으로 미끄러질건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뒤늦게 합격하고 안 사실인데, 어머니께서 사주를 봤는데 올해 절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주도 좋은 내용만 안에 담고 그게 아니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⑤ 우울한 감정을 피하지 않기

우울의 늪에 빠진다면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인을 분석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최대한 제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게 불안함으로 이어지고 우울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나를 칭찬해줬습니다. '와,오늘은 정말 나보다 열심히 한사람은 없을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는 최악입니다. 저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초수의 나와 재수의 나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⑥ 이별을 성장기회로 삼기

재수 생활 중 오래된 연인과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슬픈 기억이 떠오르면 감정을 배설하듯 독서실 화장실에 가서 울고 다시 자리에 앉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 오히려 저는 나를 위한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고, 감정에 매몰되어 감정 컨트롤이 어려울 때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기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고 정진해나가는 제 자신을 보며 어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⑦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가끔 시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시험 한 달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유대감이 깊은 편이었고, 늘상 아프신 적이 없고 정정하셨기에 더욱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날도 독서실 비상계단에 앉아 펄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만약 초수 때 합격했다면, 할머니와 그래도 괜찮은 추억 하나 짚은 더 만들었을텐데라는 아쉬움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험생활 매순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에 도움이 된 교재 활용법



★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구성체계	
1. 성립 및 목표	- 성격 : 교과(목)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설정 - 목표 : 교과(목) 학습을 통해 기르거나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을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 - 내용 체계 :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냄 - 영역 :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기반 학문의 화의 영역이나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일차 조직자 - 핵심 아이디어 :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 이는 해당 영역 학습의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
2.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내용 요소 :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 (※TP: 2015년 내용 요소 학년(단위)에서 해당 영역 및 학습 내용) - 지식·이해 : 교과(목) 및 학년(단) 별로 배운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 과정·기능 : 교과 교육의 사고 및 탐구 과정 또는 기능 - 가치·태도 :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운한 가치와 태도 - 성취 기준 : 영역별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 성취기준 예시 : 해당 성취기준의 설명(지식 및 이해) 학습 활동 및 평가 - 성취기준 예시 : 해당 성취기준의 설명(과정·기능) 학습 활동 및 평가 - 성취기준 예시 : 해당 성취기준의 설명(가치·태도) 학습 활동 및 평가
3. 교수·학습 및 평가	- 교수·학습 방법 :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원칙과 중심 제시 - 교수·학습 방법 : 교수·학습의 방법과 따라 교과(목)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유의사항 제시 - 평가 : 평가의 목적을 설정하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원칙과 중심 제시 - 평가 방법 : 평가의 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나 유의사항 제시
인간성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미술 문화 향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구성체계 - [1. 성격 및 목표]	
미술 교과 출구 목표	대성과 향상에 대한 희망 체험을 바탕으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감성적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 를 이해하고 미술 문화 향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술 교과 세부 목표	심미적 감성 체험 : 대상과 현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심미적 감성을 기른다. 창의적 표현 체험 :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감성과 사고를 융합하여 표현하고 확장한다. 사회의 소통 체험 : 다양한 매체에 기반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소통한다. 정체성 형성 : 미술을 매개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여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여 문화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구성체계 - [2.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미적 체험	- 미적 체험은 감각을 깨워 (미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여) (미적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 대상과 현상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경험은 (알을 확장하고) (대상을 성찰하게 한다.) -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시각적 소통과 문화적 창조의 토대가 된다.)
★ 표현	- 표현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시간화하는 창의적 사고와) (창조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다양한 방식은 (아이디어와 주제를 발전시키고) (표현의 토대가 된다.) - 주요 주제는 (현실 세계와 집단 조직 요소와 창의 등을 선택하고 활동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경험하게 한다.)
★ 감상	- 감상은 (다양한 성과 문화가 반영된 미술과의 만남으로) (대상의 공동체적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비판은 (미적 인식 능력을 높인다.) - 감상은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여) (삶에서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한다.)
★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 미적 체험	- 관찰을 활용하여 미적 인식 - 표현을 표현 재료와 방법 - 주요 주제와 형식의 효과
★ 표현	-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계획하기 - 표현을 표현 재료와 방법과 재료 제작하기 - 작업을 과정으로 소통하기 - 미술 표현 활동의 삶과 연결하기
★ 감상	-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 - 미술 용어와 지식 -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
★ 고령·기능	-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하기 - 미술과 다양한 분야 연결하기
★ 가치·태도	-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 다양한 문화 존중과 참여 - 표현 과정에서의 주도성과 성취 - 자신과 타인의 작품 존중 - 미술의 다원적 존중 - 공동체 문화에 기여
★ TP	(2015년) 지식·기능 기반 교육 ▶ (2022년) 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 기반 교육(가치·태도)를 인식 함을 강화한 것을 다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5년) 학습·기능 ▶ (2022년) 학습·기능·과정·기능·가치·태도 기반 교육(가치·태도)를 인식 함을 강화한 것을 다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5년) 학습 ▶ (2022년) 학습·기능·과정·기능·가치·태도 기반 교육(가치·태도)를 인식 함을 강화한 것을 다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5년) 학습·기능 ▶ (2022년) 학습·기능·과정·기능·가치·태도 기반 교육(가치·태도)를 인식 함을 강화한 것을 다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본서 5권 + 라벨링 작업

교육과정 틀 예시

① 기본서에 모두 정리하기

저는 기본서에 위상 1년 강의의 모든 내용을 필사적으로 다 담았습니다. 삼수를 하게 되면 다시 1년패키지로 강의를 듣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내용 정리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암기하면 무조건 시험엔 합격하겠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책에 대한 애정도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독을 하다보면 책 몇페이지 어느 부분에 해당 개념이 나와있는지 아는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술 전공 특성상 시각적 요소에 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사진처럼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론 내용을 여러 책으로 분산하면 책이 익숙해지는 것을 늦추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단권화를 추천드리고 단권화하기에 적합한 책은 가장 내용이 많이 있는 기본서라고 생각합니다.

② 기본서를 5권으로 분리

저는 상권 하권으로 분리된 기본서를 다시 재단하여 회판조서/디공/서미/동미/미교로 나눴습니다. 가벼워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며 보기 좋았고, 항상 표현 파트에서 뒤로 갈수록 집중이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참고로 표지는 재수 초반에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싶어 미리캔버스로 디자인했습니다.

③ 라벨링 작업

5권으로 나눠진 책에 라벨링을 해서 파트별 목차 분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개념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교육과정은 따로 타이핑해서 코팅하기

교육과정은 따로 틀을 만들었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비교표로 만들어 한 눈에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외웠습니다. 교육과정을 다 외우면 '내가 이것도 외웠는데, 이것 못 외웠어?' 라는 마인드가 생깁니다. 암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반드시 외우셨으면 합니다.

⑤ 형광펜 작업

저는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은 노랑 형광펜을 그었고,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은 그 위에 초록색 형광펜을 덧칠했습니다. 형광펜 작업을 하면 페이지별로 중요한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론별 중요도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희소/샘플러스 선생님(강사)께 감사의 편지 쓰기**

제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질문하러 갈 때마다 개인적으로 피드백해준 내용들이 수험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만큼 그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합격에 도움이 된 희소 학원 서비스**

강의마다 무료로 2번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횟수가 2번이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강 수업에 더 집중했고, 놓치게 되더라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수험생활 중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차분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